

16장_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날자, 상상날개를 펴자

아이들은 어디에?

한적한 농촌의 뒷산과 별판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을 것 같지만, 어디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과연 아이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 걸까?

지나가는 할아버지께 아이들의 행방을 여쭙다. 할아버지께서는 손 끝으로 면사무소를 가리키신다. 도대체 아이들이 면사무소에 모여 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면사무소에 공부방에 있는 건지, 궁금증은 이내 풀린다. 면사무소 1 층 구석에 있는 정보실. 여섯 살에서 초등학교 6 학년생까지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다. 농촌의 아이들에게도 인터넷은 가장 인기 있는 친구다. 게임금지 안내문이 펄럭이고 있지만 게임들을 찾아내서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다. 이 애들을 어떻게 들판으로 불러낸다?

몸짓을 해 보렴!

시골 아이들은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비웃는 듯 아이들의 몸은 날랜 편이 아니다. 운동장에 늘어 선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여 보라고 하자 아이들은 꿈지락거릴 뿐 반응이 없다. TV 스타들의 춤 동작을 흉내내는 건 그래도 나은 편이다. 도대체 왜 몸을 움직이라는 건지 이해 못하는 눈치다.

바로 그걸 몸짓으로 표현해 봐!

공부방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안한다. 그런데 무반응이다. 놀이는 이미 게임에 밀려 아이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것 같다. 그래도 어쩐랴. 우리는 놀이를 진행할 것이고, 아이들은 놀이를 해야만 한다.

공부방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동안 아이들은 그냥 끌려간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심심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놀이는 벌써 시작됐다. 공부방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동안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나 풍경을 몸으로 묘사하면, 다른 친구들이 그 몸짓이 무엇을 묘사하는지를 맞추는 놀이다.

첫 번째 아이가 서툰 몸짓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자 아이의 몸짓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

“도리깨질 하는 할아버지!”

이내 답이 튀어나왔다. 슬슬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돈다. 두 번째 아이가 또 뭔가 몸짓을 시작한다. 춤도 아니고 온몸이 꿈틀거리는 게 무슨 뱀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뱀!”이라고 외치자 아니란다. 온 몸이 꿈틀꿈틀, 그런데 하늘로 솟아오른다. 그때 한 아이가 목청을 돋운다.

“굴뚝 연기! 굴뚝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러자 몸짓을 하던 아이가 멧쩍은 표정으로 맞다는 고갯짓을 한다. 한바탕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고, 이제 누구를 지목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순서대로 나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맞추기 어려운 몸짓을 시도한다. 세 번째 아이가 아예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무에 붙어버린다. 나무에 몸을 웅크리며 아주 조금씩 몸을 움직인다. 아예 전위예술가마냥 심각한 얼굴이다. 아이들도 고개만 갸웃거린다. 한참 동안 몸짓을 하던 아이가 화난 듯 소리를 지른다.

“나무에 붙어있는 자벌레! 그것도 몰라?”

아이들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세 번째 아이의 몸짓이 꽤 훌륭했던 모양이다.

본격적인 몸풀기 놀이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둥그렇게 서 있다. 쌀쌀한 날씨에 몸을 풀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동작이 필요하다. 전기놀이, 온 몸으로 파도 타기, 옆에 있는 친구들 안마해주기, 먼지 털기 등 시간이 흐를수록 까르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진다. 아이들의 몸이 풀리고, 마음까지 완전히 풀렸다.

이제 피하기 놀이를 해 보자. 피하기 놀이는 제기로 하는 놀이로, 피구와 비슷하다. 두 패로 나뉜 아이들이 제기로 상대방의 몸을 맞추는 놀이다. 제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오히려 공을 피하는 것보다 더 몸짓이 요란해진다.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움직이며 몸이 민첩해진다.

그런데 이게 오늘 놀이의 전부가 아니다. 피하기 놀이의 재미가 시들해질 무렵 아이들에게 색다른 제안을 한다. 이번에는 사진 찍기이다. 놀이 중에 했던 동작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정지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멋쩍은지 키득거리면서도 하나 둘 나뉘대로 재치 있는 몸짓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런 아이들 하나 하나의 기발한 정지동작을 카메라에 담고, 이번에는 동작을 연출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멋진 동작을 하는 친구를 따라 하더니 아예 다른 친구의 동작 흉내내기를 시도한다. 이제 아이들이 몸짓놀이에 익숙해진 것 같다.

몸의 여러 가지 동작들

아이들은 공부방에 모여 지금까지 했던 동작과 재미있었던 동작들을 찰흙으로 만들어 본다. 자연에서 느낀 것도 물론 포함된다. 맨 처음, 찰흙의 뼈대가 되어줄 철사를 구부려 본다. 쉽게 구부러지지만 결코 마음대로 모양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엉성하면 엉성한 대로 철사와 찰흙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자기가 만든 작품 앞에서 우쭐대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해본다. 어설픈 찰흙 조형물을 다시 한번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철사를 구부리고, 몸으로 표현했던 동작을 찰흙으로 만들어 보면서, 그리고 다시 그 조형물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차츰 잃었던 몸의 리듬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공부방에서 꿈지락거리는 걸 참지 못하겠다는 듯 아이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자고 조른다.

자, 그러면 숲으로 가자!

갈계숲은 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숲이다. 하지만 녀석들은 이곳이 갈계숲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죽어있는 공간일 뿐이다. 높은 빌딩이, 온갖 모양의 자동차가, 지하철이, 버스가 가득한 도시를 동경하는 아이들에게 숲은 심심한 곳이다. 그러니 숲에 들어서서도 남의 집에 온 양 두리번거릴 수밖에.

그런 아이들에게 갈계숲을 소개한다. 나무로 가득한 숲, 온갖 벌레와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숲에서 다시 한번 몸짓 찾기를 시도한다. 곧게 뻗은 침엽수도, 울퉁불퉁 늙은 나무도, 키 작은 관목도 모두 ‘몸짓 찾기’의

소재가 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심심하다. 뭔가 새로운 놀이가 필요하다. 놀이가 필요하면, 규칙을 가진 놀이를 만들면 된다.

갈계숲에도 요정이 살고 있지 않을까?

갈계숲에는 나무 요정들이 산다. 그 요정들은 사람들이 사라지면 숲으로 나와 즐겁게 논다. 그런데 나무 요정들은 어떻게 놀까?

나무 요정들은 한 그루의 나무에 한두 명씩이 살고 있다. 나무 요정들은 이 나무, 저 나무 놀러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숲에는 못된 괴물도 있다. 이 괴물들은 나무 요정들을 괴롭히며 이 나무, 저 나무로 놀러 다니는 요정들을 방해한다. 나무 요정들은 스무 그루의 나무를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괴물에게 잡히지 않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괴물의 추격을 당하게 된다.

새로운 놀이의 규칙을 모두가 이해했다. 다시 갈계숲으로 나가서 요정 혹은 괴물이 되어 놀이를 즐겨보자. 모두 나무가 되어 몸풀기를 해본다. 가지는 쪽 하늘로 향하고, 뿌리는 땅으로 깊이깊이 들어간다. 바람이 불면 좌우로 허리도 굽혀보고, 태풍이 불면 아주 크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어느새 몸 풀기도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

겨울이 찾아왔다.

갈계숲에서 나무 요정놀이도 하고, 몸풀기도 하고, 수벽치기도 배우는 동안 아이들은 쑥쑥 자랐다. 하지만 오늘은 갈계숲과 작별인사를 해야 한다. 겨울이 왔기 때문이다. 겨우내 아주 잠시동안이지만, 갈계숲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인지 아이들의 표정은 어둡다.

“잠깐, 갈계숲의 나무 요정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지? 추운 겨울에 갈계숲의 나무 요정들이 공부방으로 놀러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요정들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떨까? 갈계숲에서 요정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을 주워오자!”

그 재료들로 공부방에 요정들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거다. 작은 돌멩이, 큰 돌멩이, 땅에 떨어진 나무조각, 낙엽과 솔방울이 아이들의 품에 가득 담긴다. 여섯 살 막내의 손에는 이름 모를 단단한 열매가 쥐어져 있고, 6학년 만언니의 손에는 솔방울이 가득하다.

아이들은 공부방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돌의 요정을 만들고, 솔방울 요정을 만든다. 언니가 찰흙으로 요정의 집을 만들면 동생은 언니를 따라 하며 작은 요정의 집을 완성한다. 형은 아우에게 나뭇가지와 솔방울로 요정의 집을 만들어 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는다. 언니에게 배우고, 형에게 배운다.

몸짓을 찾은 아이들, 이제 상상날개를 편다

앉아서 하는 컴퓨터, 앉아서 보는 텔레비전, 앉아서 받는 지식교육. 하지만 우리 몸은 감각하고 상상하기를 원한다. 함께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이제 콩 타작 하는 할머니의 몸짓을 유심히 관찰한다. 도리깨질 하는 할아버지를 구경만 하는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도리깨질을 한다. 가은이는 이제 더 이상 얼굴 없는 인형을 만들지 않는다. 지연이는 자기만 봐달라고 때를 쓰는 대신 자기가 하고픈 말, 사람들과 나누고픈 말을 툭툭하게 이야기한다. 아이들은 마침내 자기만의 몸짓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몸짓을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과 감성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경남 거창 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놀이체험프로그램 '수벽치기와 우리 몸짓 찾기'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